

광양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 힘 모은다

제1회 문화도시 광양 행정협의체 회의 개최...27개 연계사업 발굴 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10월 법정문화도시 지정 목표 '비지담'

광양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

광양시는 최근 '2023년 제1회 문화도시 광양 행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회 행정협의체 회의는 '문화교역도시 광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서 간 사업 공유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열렸다.

위원장인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국장 및 부서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7개 연계사업을 발굴했으며, 문화 도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광양시의 의지를 보여줬다.

광양시는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예비 사업 성과 및 관련 자료 제출(8월), 통합(현장·발표) 평가(9월)'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제5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문체부에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전에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해 1년간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예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주 부시장은 이어 "2017년에 시작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5개년)에서부터 지난해 9월 우리 시



지난 2일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국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문화도시 광양 행정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광양시 제공>

가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면서 "행정협의체 회의가 문화도시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우리 시 조직의 역량을 총집

결해 문화도시로 가는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 전국가야금경연 성료 278개팀 역대 최대 참가

제21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가야금병창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국 초·중·고등부,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가야금 산조, 병창, 창작 등 총 14개 부문에서 278팀 289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상(일반부 대상)은 김지애(고양시)씨가 수상했다. 상금 1000만원과 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고흥군 국악기연구원의 산조 가야금 1대를 받았다.

대학부 대상인 문화체육부 장관상은 최정음(남·서울대), 고등부 대상은 노향(여·국립국악고), 중등부 대상은 김은채(여·국립전통예술중), 초등부 대상은 이지우(여·구름산초), 신인부 대상은 추정민(여·서울)이 받았다. 우리 지역 참가자 표순옥(여·구례)씨는 신인부 금상에 올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순천만정원박람회 명소 웹드라마로 만나세요"

시, '수상헌 여행사' 제작 지원 순천만습지 등서 촬영 들어

순천시는 시가 제작 지원한 웹드라마 '백설공주와 수상헌 여행사' (이하 수상헌 여행사)에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순천을 대표하는 명소가 담겼다고 11일 밝혔다.

판타지 로맨스 웹드라마를 내건 '수상헌 여행사'는 지난달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갔다. 4인 디지털에블루션이 제작을 맡았다.

시공을 조율한 '백설'이 순천에 등장하면서 세

명의 지역 청년들과 벌이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백설 역은 웹드라마 '무대숲', '환생파트너' 등에서 활약한 송예빈씨가 맡았다.

또 다른 주인공 '동식' 역은 다수 광고에 출연한 모델 겸 배우 최근호씨가 맡았다. 김도현씨와 김태성씨는 각각 '강식'과 '준식'을 연기한다.

드라마는 정원박람회장 뿐만 아니라 달빛야시장, 옥리단길 등 다양한 순천 명소를 배경으로 한다.

노란규 순천시장은 "이번 웹드라마 제작을 통해 정원박람회 파급 효과를 높이고 주요 관광지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을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백설공주와 수상헌 여행사'. <순천시 제공>

보성군-경남 하동군, 차(茶) 산업 발전 '맞손' 차 문화 부흥 위한 교류 강화...공동 프로젝트 구상

우리나라 차(茶) 산업을 주도하는 전남 보성군과 경남 하동군이 차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군수는 지난 10일 군공직자 20여명과 함께 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김 군수는 하승철 하동군수와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양 지자체의 차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보성세계차엑스포와 하동세계차엑스포에서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고 서로 공유해 다음 행사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 행사 콘텐츠 교류뿐만 아니라 차 재배 농가와 지역 차인 등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차 문화 차

체가 부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성군과 하동군의 전통 차 농업과 전통 제다 기술의 보존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 공동 대응, 차 역사·문화 아카이빙 등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군수는 특히 보성군과 하동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차 생산지가 힘을 모아 차의 효과와 한국 차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국내 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보성군과 하동군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파이벳'이 아니라 '파이 키우기'를 해낼 수 있다



김철우(왼쪽) 보성군수와 하승철 하동군수가 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장 내 명원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한국 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밤에도 달린다

'세계장미축제' 개막일 20일부터 상시 야간 개장

곡성군은 '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개막일인 오는 20일부터 섬진강기차마을을 상시 야간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섬진강기차마을은 그동안 낮에만 운영했다. 축제 기간인 20-29일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입장은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은은한 조명 아래 만개한 장미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곡성군 측은 기대했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오후 6시부터 무료로 밤 10시까지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곡성군은 상시 야간 개장을 시작하는 대신 유료 관람객에게 제공한 곡성 심정상품권 2000원권 환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환급제 폐지는 입장료 인상 대신 선택한 방침이다. 입장료 수입인 철도공원 조성사업 등에 활용된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최근 장미공원 규모를 2배 넓혔고,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운행 구간도 확장했다. 이곳에서는 가상현실(VR) 체험관과 4D 영상관, 생태학습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풍 체험과 길거리 공연 등 행사도 다채롭다. 내년에는 대규모 물놀이장이 들어선다.

곡성군 관계자는 "섬진강기차마을의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보완해 특색 있는 구경거리와 체험거리,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곡성군은 '13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개막에 맞춰 섬진강기차마을을 오는 20일부터 밤 10시까지 열기로 했다. <곡성군 제공>

절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